

아트앤스터디 <오페라에 중독되다>

① 오페라의 기원과 발전: 상업 오페라극장

* 오페라의 탄생 : 이탈리아 피렌체 바르디 백작이 이끈 귀족 및 예술가들의 모임 <카메라타Camerata>(작은 방)에서 1598년 최초의 오페라 <다프네Daphne>(리누치니 대본/페리 작곡)가 탄생했다. 그러나 악보의 소실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1600년의 <에우리디체Euridice>가 되었다. <에우리디체>는 프랑스 앙리 4세와 피렌체의 마리아 데 메디치의 결혼 축하연을 위해 의뢰된 작품으로, 몇 대의 류트와 하프시코드가 무대 뒤에서 반주했다.

1) 시대 개요 : 바로크 시대는 1600년부터 1750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1610-1648년간에 일어난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이 절정에 이른 사건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 중유럽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절대왕정을 폈고, 영국은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입헌군주정을 확립해가고 있었다. 대제국 건설의 꿈을 안은 유럽 지배자들은 신세계로 눈을 돌렸고, 17세기 말에 터키가 쇠퇴하면서 프로이센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스웨덴에 승리를 거뒀으며 동유럽의 판도가 바뀌었다.

정치적 변화와 함께 문학이 크게 발전했다.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라신, 존 던, 밀튼, 세르반테스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바로크 시대의 자신감은 베르니니의 조각, 카라바조나 루벤스의 그림,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렌이 설계한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등에서 잘 드러난다.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는 이 시대의 네덜란드 미술을 대표한다.

이 시기는 기술 발전의 시대이기도 했다. 망원경과 현미경이 놀라운 시대를 열었다. 케플러와 갈릴레오는 뉴턴의 운동과 중력의 발견을 위한 길을 닦았다.

음악에서는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소나타와 협주곡도 선을 보였다. 바로크를 대표하는 음악양식들이 발흥한 이탈리아 음악계는 스카를라티와 비발디가 이끌었고, 몬테베르디는 오페라에서 천재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바로크 음악이 절정에 이른 것은 역시 바흐와 헨델을 낳은 독일에서였다.

* 바로크(baroque) : 포르투갈어 '일그러진 진주(barrocco)'에서 온 단어. 일그러졌다는 것은 불규칙하다는 의미로, 앞선 시대인 르네상스가 지향하던 균형과 조화에 결별을 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음악에서의 '바로크'는 단순히 장식이 많고 연극적인 양식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당시 작곡가들은 과거와의 결별을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

2)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의 시대 :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형식. 레치타티보(대사)와 아리아가 주요소이며 중창이나 합창이 간혹 사용되지만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소재는 주로 신화나 고대 영웅전에서 취한 진지한 내용들이다.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으로 한 많은 기교주의 오페라들이 이에 속한다.

3) 바로크 오페라의 기본 규범

- a) 허장성세 : 정형화된 연기와 과장된 의상 및 무대장치로 귀족의 신분과 품위를 과시한다.
- b) 다카포 아리아 : A-B-A' 형식의 다카포(Da capo) 아리아로 청중의 머릿속에 주요 멜로디를 각인한다.
- c) 카스트라토의 비중 : 주인공 역의 카스트라토는 기본적으로 다섯 곡의 아리아를 부른다(1. 비장한 아리아, 2. 기교적인 아리아, 3. 낭송조의 아리아, 4. 혼합된 성격의 아리아, 5. 밝고 화려한 아리아).
- d) 대중 정서에 호소 : 일반적인 정서를 담은 아리아들을 작곡해 대중적인 관객들을 만족시킨다(질투, 분노, 상호간의 약속, 부재 등등 연인들 사이에 일상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 아리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4) 카스트라토(castrato)의 전성시대

티없이 맑고 높은 미성(美聲)은 천사의 목소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중세 교회음악에서 크게 사랑 받았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는 이런 중세의 전통을 계승해 세속가요에서도 고음의 미성을 선호했다.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소화하는 데는 중후한 목소리보다 고음의 미성(남성 알토)이 잘 어울린다는 이유였다.

르네상스 시대 폴리포니 음악(다성음악)에서 모든 음역의 기준이 되는 '테너(tenor)'의 바로 위에 놓였던 성부(聲部)는 콘트라테너(contratenor)로 불렸고, 여기서 현대의 카운터테너(Countertenor)라는 단어가 파생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즉, 테너의 상대음역 또는 반대음역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성(假聲, 팔세토)을 사용하는 영국의 '남성 알토' 전통은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들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영국에서 이런 알토가 쇠퇴할 무렵 이탈리아에서는 '카스트라토(castrato)'라는 새로운 성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바울로 사도의 언급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교회에서 여성은 설교할 자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노래도 부를 수 없었다. 교회 성가대원은 모두 남자 어린이와 어른으로 구성되었다. 로마 교황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유럽 전 지역에서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오페라 무대에서도 여성이 노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변성기 이전의 사내아이를 거세시켜 맑은 고음으로 노래하게 한 카스트라토가 유행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오페라 관객들은 카스트라토의 기교 위주 창법에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목소리와 무대를 원하게 된다. 그것이 카스트라토 시대의 종언인 동시에 근대 오페라의 출발점이다. 나폴레옹 군대는 1799년 시칠리아를 점령하면서 카스트라토 양성학교를 문닫게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자신은 크레센티니라는 카스트라토에게 반해 그를 황실음악교사로 파리에 초빙하기도 했다.

카스트라토가 사라지면서 그 시대에 카스트라토를 위해 작곡된 수많은 오페라와 악곡들을 여성 가수들이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배역을 여성이 부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경우에는 훈련에 의해 고음을 내는 현대의 카운터테너들이 그 역을 맡기도 한다. 영국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쇠퇴한 남성 알토의 전통은 지방 교회들을 통해 미약하나마 전승되었고, 카스트라토 시대가 쇠퇴하면서 19세기에 와서 다시 전통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카운터테너의 목소리는 남성적인 파워가 여성적인 고음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한편으로는 천상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적, 감각적 쾌감으로 청중을 매혹한다.

5) 바로크 시대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들

a)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

불우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성당 악장에게서 훌륭한 음악교육을 받았다. 17세에 만토바의 실세 곤차가 집안에 들어가 현악기 주자로 일했다. 1607년 오페라 <오르페오>를 만토바에서 초연했다. 이 오페라는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40대 가량) 음악을 단순한 장식 수준에서 작품의 일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최초의 비중 있는 오페라 작품으로 인정된다. 1637년에 베네치아에서 최초의 상업극장(산 카시아노 극장)이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몬테베르디의 오페라는 망각 속에 묻혔을지도 모르지만, 오페라하우스의 개관과 더불어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고, 말년에 그는 <율리시즈의 귀환>, <포페아의 대관> 같은 더욱 발전된 작품들을 내놓았다.

b) 장 바티스트 뢰리(Jean-Baptiste Lully, 1632-1687)

피렌체의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난 뢰리의 원래 이름은 조반니 바티스타 뢰리였다. 14세에 프랑스 기사에게 고용되어 그의 여조카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면서 춤과 음악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파리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그는 루이 14세의 궁정작곡가가 되었고, 왕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서른 살에 프랑스로 귀화하고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뢰리는 유명 희극 작가인 몰리에르와 함께 작업하며 공동으로 코미디 발레를 창작했다. 대표작으로는 <부르주아 장틸롬>(평민귀족)이 있다. 몰리에르와 결별한 뒤 뢰리는 1673년 콘티누오, 아리아, 레치타티보, 합창 등으로 이루어진 첫 서정비극 <카드뤼스와 에르미온>을 작곡했다. 파리에서의 음악 공연 독점권을 가졌던 뢰리는 자신이 제작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에는 연주자 수가 8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뢰리는 지휘 중에 실수로 발등을 찍어 입은 상처가 덧나 55세에 사망했다. <아르미드Armide>, <알세스트Alceste>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c)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

일찍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인 퍼셀은 런던의 채플 로열에 소년합창단원으로 들어갔고, 8

세에 이미 성악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변성기가 지난 뒤엔 왕실 악기관리자의 조수로 일했고, 성당의 오르간 조율감독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오르간 주자로 임명되었다.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퍼셀은 오페라 연구에 몰두하다가 1689년 영국 최초의 오페라로 음악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도와 에네아스Dido and Aeneas>를 작곡했다. 짧은 작품이지만 이 안에는 춤과 합창 등 다양한 양식과 함께 희열에서 절망에 이르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다. 이후 퍼셀은 <아서 왕>, <요정의 여왕> 등 37편의 오페라와 극음악을 작곡했다. 1694년 메리 여왕이 천연두로 사망하자 퍼셀은 여왕을 위한 장례음악을 작곡했지만, 그 음악은 이듬해 36세로 세상을 떠난 그 자신의 장례음악으로도 쓰였다.

d)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andel, 1685-1759)

독일 작센 지방의 할레에서 63세 된 이발사 겸 외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궁정이발사로 일할 때 헨델은 공작의 궁정에서 오르간을 연주할 기회를 얻었고, 헨델의 재능을 알아본 공작은 내켜하지 않는 부모를 설득해 음악공부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헨델은 법학과 작곡, 연주를 함께 공부했다. 18세에 헨델은 할레에서 함부르크로 옮겨 공부를 계속했는데, 당시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도시였다. 이곳에서 일하다가 21세에 피렌체에 초청받아 3년간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이탈리아 기악과 오페라 작법을 공부했다. 1710년에 헨델은 <리날도Rinaldo> 공연차 영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의 성공에 감격해 런던에 정착했다. 1719년 영국귀족들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왕립음악아카데미를 창설했고, 헨델은 그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로부터 8년간 런던은 유럽오페라의 중심지가 되었고, 헨델은 1724년에 발표한 <줄리오 체자레Julio Cesare>(줄리어스 시저)를 비롯한 여러 작품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e) 장 필립 라모(Jean-Philippe Rameau, 1683-1764)

프랑스 디종에서 태어나 예수회 학교에서 공부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법률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18세에 밀라노에 가서 음악공부하는 것을 허락해준다.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다가 라모는 첫 번째 하프시코드 작품집을 썼고 <화성 이론>을 발표했다. 음악의 중심지 파리로 가고 싶었던 그는 클레르몽 사람들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마구 불협화음을 연주해 결국 쫓겨났다. 파리에 가서 10년간 공식적인 직책은 얻지 못했지만 라모는 오페라 작곡을 원했고, 마침내 어느 부호 부인의 후원을 얻어 꿈을 이루었다. 라신의 비극 <페드라>에 바탕을 둔 첫 오페라 <이폴리트와 아리시>를 1733년에 발표한 것이다. 당시 라모는 50세였고, 이때부터 그는 활동을 그만둘 때까지 오페라를 작곡하고 지휘하며 삶을 보냈다. 오페라를 연출하면서 그는 뮐리보다 더욱 음악적 요소에 비중을 두었다.("뮐리에게는 배우가 필요하지만 내게는 가수가 필요하다.") 1735년의 <멋진 인도인들>, 1737년의 <카스토르와 폴룩스>도 모두 대성공을 거뒀는데, 이들 작품에서 라모는 과감한 화음을 선보여 뮐리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혔다. 비극 오페라의 상투성을 패러디한 코믹 오페라 <플라테>도 1745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감상 영상>

1)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L'Orfeo>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지휘,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몬테베르디 앙상블 연주, 장 피에르 포넬 연출, 1978년, DG

2) 영화 <왕의 춤Le Roi danse> 중 퀴리의 <밤의 발레>

3) 퍼셀의 <디도와 에네아스Dido and Aeneas>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지휘,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연주, 웨인 맥그리거 연출 및 안무, 2009년 런던 코벤트가든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 opus arte

3) 헨델의 <리날도Rinaldo>

해리 비켓 지휘, 바이에른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데이비드 올든 연출, 2001년, RM Associates

4) 라모의 <플라테Platee>

마크 망코프스키 지휘, 그르노블 루브르 박물관 오케스트라, 로랑 펠리 연출, 2002년, 스펙트럼 DVD

(음악평론가 이용숙 rosina@chol.com)